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UCI]I804:24011-200000266466

2017년 8월

교육학석사(미술교육)학위논문

한지공예와 현대미술기법을 접목한 전통미술교육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윤 양 운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한지공예와 현대미술기법을 접목한 전통미술교육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raditional art education that combines Hanji craft and Modern art technique

2017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윤 양 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한지공예와 현대미술기법을 접목한 전통미술교육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조 윤 성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미술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윤 양 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윤양운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진 원 장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박 상 호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조 윤 성 (인)

2017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목 차

ABSTRACT

Ⅰ. 서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3

Ⅱ. 전통미술로서 한지공예의 이론적 배경 ··· 4

제1절 전통미술과 한지공예의 이해 ····· 4

1. 전통미술의 개념과 교육적 의의 ····· 4

2. 한지공예의 이해 ····· 10

제2절 한지공예의 교육적 활용 가치 ····· 18

Ⅲ. 전통 한지공예의 기법과 새로운 활용 방안 ····· 20

제1절 한지공예의 표현 기법 ····· 20

1. 지승 및 지호공예 ····· 21

2. 지화 및 지회공예 ····· 24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전지 및 지장공예 ····· 25
4. 교염 및 판염공예 ····· 28
5. 닥종이 인형 ····· 29
제2절 한지공예기법의 새로운 활용 방안 ····· 31
1. 파피에꼴레를 접목한 한지공예 ····· 31
2. 프로타주를 접목한 한지공예 ····· 36
3. 포토몽타주를 접목한 한지공예 ····· 39
4. 꼴라주를 활용한 한지공예의 교육적 효과 ····· 42

Ⅳ. 효과적인 교육지도 방안 ····· 44
제1절 효과적인 교육지도 방안의 기대효과 ····· 44
제2절 효과적인 교수 · 학습 지도안 ····· 45
1. 교수 · 학습 지도 방안 계획 ····· 45
2. 한지공예를 활용한 교수 · 학습 지도안 ····· 49

Ⅴ. 결론 ····· 62

참고문헌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목 차

<표-1>. 전통 한지공예 수업 학습 계획 ····· 47
<표2-1>. 1/4차시 지도안 ····· 51
<표2-2>. 1차시 평가 기준 ····· 52
<표-3>. 2/4차시 지도안 ····· 54
<표4-1>. 3/4차시 지도안 ····· 57
<표4-2>. 2~3차시 평가 기준 ····· 58
<표5-1>. 4/4차시 지도안 ····· 60
<표5-2>. 4차시 평가 기준 ····· 61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 림 목 차

<그림1-1>. 지승공예: 구절판 ····· 22
<그림1-2>. 지승공예: 맷방석 ····· 22
<그림1-3>. 지승공예: 망바구니 ····· 22
<그림1-4>. 지승공예: 지승키 ····· 22
<그림2-1>. 지호공예: 구절판 ····· 23
<그림2-2>. 지호공예: 함지박 ····· 23
<그림2-3>. 지호공예: 오리세트 ····· 23
<그림2-4>. 지호공예: 달항아리 화로탁자 ····· 23
<그림3-1>. 지화공예: 따리화 ····· 24
<그림3-2>. 지화공예: 목단 ····· 24
<그림3-3>. 지화공예 ····· 24
<그림4-1>. 지회공예: 갓집 ····· 25
<그림4-2>. 지회공예: 빗접 ····· 25
<그림5-1>. 전지공예: 오색 삼합 상자 ····· 26
<그림5-2>. 전지공예: 소반 ····· 26
<그림5-3>. 전지공예: 지우산 ····· 26
<그림5-4>. 전지공예: 10서랍콘솔 ····· 26
<그림6-1>. 지장공예: 안경집 ····· 27
<그림6-2>. 지장공예: 종이 항아리 ····· 27
<그림6-3>. 지장공예: 팔각반짇고리 ····· 28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6-4>. 지장공예: 지장서류함 ····· 28
<그림-7>. 교염공예 ····· 29
<그림-8>. 닥종이 인형 ····· 30
<그림9-1>. 파피에꼴레: 조르주 브라크 ····· 33
<그림9-2>. 파피에꼴레: 조르주 브라크 ····· 33
<그림9-3>. 다양한 작품의 파피에꼴레 ····· 34
<그림10-1>. 프로타주: 막스 에른스트 ····· 37
<그림10-2>. 프로타주: 막스 에른스트 ····· 37
<그림10-3>. 다양한 작품의 프로타주 ····· 37
<그림11-1>. 포토몽타주: 존 하트필드 ····· 40
<그림11-2>. 포토몽타주: 김아영 ····· 40
<그림11-3>. 다양한 작품의 포토몽타주 ····· 40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BSTRACT

A study on traditional art education that combines Hanji craft and Modern art technique

Yoon, Yang Woon
Advisor : Prof. Cho, Yoon Sung, Ph.D.
Major in Fine Art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duce the interest about art and build a perception of tradition for the students who are quickly changing in today's digital era and losing the identity and tradition of our country's people in the modern society. This research aims to develop and apply a new teaching method of traditional art that can grow the students' capability to neoterically reinterpret the traditions in and create in a unique way. It's true that most classes were coped with appreciations in the past curriculum, and classes like these have brought negative effects like reducing students' interest and making them consider tradition stuffy and old-fashioned. But since tradition hardens our people's identity int eh globalization era and shows the fruit of our 5000 year history, we should preciously preserve traditions and develop it furthermore.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So this research aims to graft modern techniques onto traditional art and find a creative studying method through which students can learn more easily and with more interest, so that students don't just consider traditions stuffy and old-fashioned and exclude them. As a solution for that, students will have to use collage, a modern technique, to create a Hanji craft by using Hanji, Korea's traditional paper, so that they can inherit and develop out country's tradition.

The process of the class is composed of 4 steps. First is generally understanding Hanji and learning theoretical knowledge about Hanji craft. Second is explaining collage, which is a modern technique that will be grafted onto Hanji craft, and finding what method of Hanji craft method can be combined with what type of collage. Third is having a practical lesson that combined paper art and papier colle, which are both expressive techniques of Hanji art. Then the teacher will lead students so that they can reduce the psychological distance about traditional art about writing an artwork activity report and complete their traditional Hanji craft by combining modern techniques, unique expressions, and composition. Fourth, students will appreciate and evaluate each other's work.

A new possibility about traditional art education could be observed by this research. Students can beat their resistance about traditional art more and gain more interest by grafting modern techniques to Hanji craft than in erstwhile traditional art classes, and thereby students can create original work and use them in this craft class. Students' creative expressions will be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elicited, and by inducing their interest and attention, an effective learning will be possible.

So as a method to beat students' resistance to tradition, arouse interest, and arouse the importance of tradition, the modern technique collage will be combined with Hanji craft. Students will be able to learn while creatively expressing, and they'll experience various techniques of collage. They'll learn what techniques of collage make the expression more effective when combined with Hanji craft, and realize the importance of our country's tradition through that process.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Ⅰ.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시대를 뛰어 넘어 4차 혁명이라는 문화적 과도기를 맞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미술이 더욱 소외되고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전통미술 재료인 한지를 활용한 전통미술을 현대적 기법과 혼합한 교육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전통미술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여 전통미술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전 세계에는 242개의 나라가 있으며, 각각의 나라마다 고유의 전통문화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5천년의 오랜 기간에 빛나는 뛰어난 전통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전통 문화에는 무형 문화재를 비롯해 건축, 전통 악기, 공예 등이 있다. 오늘날 세계화, 서구화가 빠르게 진행되어지는 현대 사회에서 각 나라의 전통 문화의 보존 가치는 매우 중요하며, 이는 곧 관광 자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의 경쟁력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선조들이 물려준 전통에 자부심을 갖고 이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발전 시켜야 한다.

하지만 우리를 비롯한 오늘날의 학생들은 전통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서양 문화에 대해 동경심을 갖기도 하고 서양의 유행에 민감하게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전통미술의 인식보다 현대미술의 인식이 중요시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작가들 보다 서양의 작가들을 더욱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극복하고자 전통미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전통미술에 대한 교육이 활성화되어 지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과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시 되어야 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본 연구에서 한지공예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의 뛰어난 전통미술의 재료로서 한지를 이용하여 전통미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 자부심을 갖게 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난 전통 문화를 인식할 수 있으며, 한지라는 재료가 창의적인 표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다양한 미술교육을 통해 미적 안목을 높여 활용하며 조형요소인 색채나 재료, 형태 등을 통해 시각적, 공간적, 조형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현대적 표현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보다 쉬운 전통미술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지공예에 현대적 기법을 접목하는 새로운 활용 방안을 생각하여 학생들에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학습을 통해 현대미술의 교육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전통미술에 대한 거부감이 감소되어질 수 있고 흥미를 유발시켜 창의적인 표현 활동이 되도록 한다. 이와 같이 미술교육에서는 창의적이고 전인적인 인간 육성을 목적으로 하여 창조적인 능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조형적인 부분에 알맞은 재료와 표현 기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전통미술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전통미술에 대해 올바른 가치관의 형성과 안목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모습의 수업 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한지를 이용하여 전통미술의 교육적 가치와 흥미를 높여 우리의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향상시켜야 하고, 한지의 조형적 요소를 이용하여 입체적인 표현의 가능성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어야 한다. 현대적 기법을 접목한 한지공예를 지도하면서 한지에 대한 이해와 문화적 · 재료적 특성을 살펴보며 전통미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 흥미를 높이는 것에 목적을 두어, 이에 따라 전통에 대한 인식과 자긍심이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학습자들이 한지공예에 현대적 기법을 접목하여 한지공예의 다양한 표현 기법과 현대적 기법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표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미술에 대한 미적 가치를 인식하고, 전통미술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또한 전통미술에 대한 가치가 높은 한지를 활용해 학습자들에게 높은 표현력 및 많은 경험을 갖게 하고 전통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확립시켜 주고자 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전통 문화를 창조하고 세계에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에 대한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며 전통을 창의적으로 계승하려는 태도를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반영하기 위한 본 연구의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교육의 한 분야인 전통미술교육의 개념, 전통미술의 의의와 필요성을 선행연구와 관련 서적을 통해 알아본다.

둘째, 전통미술에 해당되는 한지공예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한지공예의 의의와 특성을 문헌 연구를 통해 알아본다.

셋째, 한지공예의 다양한 표현 기법을 이해하고 이를 체험하게 하여 한지공예에 대한 교육적 가치를 알아본다.

넷째, 한지공예기법의 새로운 활용 방안으로 현대적 기법인 꼴라주를 접목시켜 전통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일깨워주고 꼴라주를 접목한 한지공예의 교육적 가치를 알아본다.

다섯째, 효과적인 교육지도 방안을 위해 현대적 기법인 파피에꼴레와 접목한 한지공예의 새로운 지도 방안을 제시한다. 그러나 여기에 제시되어진 지도 방안은 전통미술 인식을 위해 한지공예와 현대적 기법을 접목한 새로운 효과적인 교육지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 것이므로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음을 밝힌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Ⅱ. 전통미술로서 한지공예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전통미술과 한지공예의 이해

1. 전통미술의 개념과 교육적 의의

가. 전통미술의 개념

흔히 사람들은 전통이라고 하면 오래된 것, 옛날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사전적 의미의 전통은 '이어받은 계통' 혹은 '계통을 받아 전함'을 말한다. 전통의 넓은 의미로는 일정한 집단 공동체인 국가 · 민족 · 가족 및 지역 사회의 단위로서 전해져 오는 사상 · 관습 · 기술 · 행동 등의 양식을 뜻하는 것으로 때로는 문화적 유산 속에 현재의 생활 속에 이미 효용이 있는 인습이나 습관 등을 의미한다.[1] 따라서 전통이란 단순한 과거의 산출물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유기적으로 혼합하여 현재의 삶을 풍족하게 해주며, 새로운 미래를 창출할 수 있는 정신적인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통은 우리 민족의 정서와 성장, 양식, 풍토 등이 농후하게 깃든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다.

미술은 그 시대의 역사를 그대로 기록하고 반영한다. 임영방(2003)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던지 간에 자기를 표현하고 타인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자신의 존재성을 정확하게 하는 존재이고, 특히 미술은 사람이 나타낼 수 있는 자연스럽고 독자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표현을 갖고 기록하여 전달하는 제3의 언어라고 하였다."라고 주장한다.[2]

1) 서석례외 2인, 『미술과 교사용 지도서』 (서울: 중앙교육진흥연구소(주), 2000), p.10.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렇기 때문에 미술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를 수 있는 역할이 된다. 미술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미의식과 미적 창의성은 미술품의 양식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므로 우리나라의 전통미술에 포괄적으로 포함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미술은 그 시대의 문화를 그대로 기록하는 역할과 기능을 한다. 미술은 자신이 포함된 문화권의 사상과 정서 및 가치의 형식, 양식적, 상징적, 생산적전통의 유형과 질서 체계를 따라가거나 탈피하려는 미술인들의 과정이므로, 그 시대에 대한 문화 지식과 전달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미술은 문화의 동적인 요소와 복합적인 요소들 중 하나로서 문화의 총체적 집합체라 할 수 있으며, 그 민족 문화의 형태를 결정짓는 역할을 한다. 다른 민족의 문화를 살펴보면, 문화 속에서 미술의 변화 과정과 이러한 변화가 문화의 근원과 서로 막역한 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미술은 문화의 가치 안에서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는 미술을 자신의 문화와 다른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수단으로 그 시대의 문화를 관측 할 수 있어야 한다.

전통미술에 정의에 대해 서울교대 미술교육연구회(2008)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첫째, 전통은 미술을 포함한 모든 문화에 있어서 단순한 과거의 유산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그것은 과거와 관련이 있는 것이면서도 현재의 생활을 풍족하게 하고 미래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데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둘째, 전통은 한 민족의 문화를 일광성이 있게 해주며 다른 민족의 문화와 구분되게 해준다.

셋째, 전통 문화는 고유성과 외래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는 중국 등의 외래적 요소를 지니면서도 고유성을 지니고 있다.[3)]

2) 임영방, 『미술이 걸어온 길』(서울: 학고재, 2003), p.11.
3) 이규선 외 6명, 『미술교육학 제3판』(파주: 교육과학사, 2008), p.404.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즉, 전통미술은 우리 민족의 미의식과 고유한 문화가 담겨 가치 있는 전통을 후세에 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한 민족의 문화를 일관성 있게 해주며, 다른 민족의 문화와 나눠지는 특징을 지니고 그 나라에 대한 국민의 정신과 습관을 지닐 수 있게 한다. 또한 전통미술은 우리 민족이 살아오면서 형성된 자생적인 문화라고 할 수 있고 미의식과 민족적인 특성이 있다.

진정한 전통미술교육의 방향에 대해 이성도 외 3인(2005)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전통미술교육은 학습자 자신과 문화 정체성을 밝히는 데 기여해야한다. 전통 문화를 통해 한 개인의 정체성과 민족 문화의 독창성을 밝힘으로써 다양한 문화의 교류들 속에서 새로운 미술문화를 창조할 역량을 길러야 한다. 특히 문화적 다원주의 시대에 전통적 조형 의식을 회복하는 것이 민족 문화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변화하는 문화적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길이기도 하다. 또한 새로운 가치와 전통을 창조하고 오늘의 교육에 필요한 미래 지향의 인간을 길러내는 방법이기도 하다.[4]

이와 같이 진정한 전통미술교육을 위해 전통미술 작품들을 간단히 제시하거나 따라하여 만들어 보는 것이 아니라, 전통미술에 담겨있는 우리 민족의 혼과 정신을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어 교육해야 한다. 전통미술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서 시대적 배경과 작품에 담긴 작가의 의도와 정신 등 다각적인 방향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를 통해 학생들은 우리 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타문화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현대에 맞도록 하여 전통미술을 직접 표현해보도록 한다.

전통미술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고 현재에도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올바른 가치를 알려주고 판단력을 길

4) 이성도 외 3인, 『전통미술 문화 교육』 (서울: 미진사, 2005), pp.347-48.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러주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전시대의 무조건적인 습답이 아닌 현시대에 맞는 계승과 발전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전통미술의 가치를 깨닫고 우리나라 고유의 민족정신을 배우며, 우리나라의 전통미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나. 전통미술교육의 필요성

흔히 우리는 전통에 대해서 과거의 성격을 지닌 문화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전통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현대의 문화만을 중요시 하여 따르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통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전통미술의 인식은 우리 민족의 본질적인 바탕으로 오랜 역사 동안 내면화 되어 사회, 문화, 의식, 관념 등 모든 요소를 지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신적 의미를 이해하고 재창출해 나갈 때 더욱 더 수준 높은 우리 문화를 창조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전통에 뿌리를 내린 한국의 미에 대한 조형의식은 우리 민족의 정신과 혼이 담긴 미술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의 발걸음이 되므로 전통미술의 인식은 중요하다.

전통미술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성도 외 3인(2005)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현재 전통 교육은 정보화시대를 살아가며 다양한 문화에 쉽게 접할 수 있어 혼란을 느낄 수 있는 학생들에게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통교육을 필요로 하고 점점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사람이 마주할 수 있는 정보의 80%이상이 시각적 바탕으로 판단하고 활용되며, 과거의 어느 때보다 시각적 문화가 많기 때문에 미술교육에서의 전통에 대한 고유성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바탕을 둔 독자적인 문화를 교육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술은 하나의 시대나 사회의 정신과 모습을 그대로 반영되어 기록하고 전달하기 때문에 문화적 가치뿐만 아닌 다음 세대가 학습하는 자료로서 가치가 높다. 특히 전통미술은 우리 민족의 조형의식과 가치관, 미의식이 깃들어 있고 삶의 지혜가 녹아있는 고귀한 문화유산이므로 적극적으로 학교 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5)]

이로써 전통미술은 우리 민족의 정신과 혼이 담긴 문화유산으로 독창성이 뛰어나 미래의 새로운 문화 창조에 근본이 되기에 그 교육적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통미술교육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전통미술교육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찾는 교육이다. 전통은 사람을 사람답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민족성을 유지하면서 타문화를 구분하여 주기도 한다. 한국 문화의 전통과 계승 문제는 서양문화의 전 세계적인 보편화 과정에서 강조되고 있는데, 문화의 전통이 민족의 문화적인 정체성 확립과 연결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술교육에서 우리의 전통미술에 대해 올바른 이해와 방향을 제시하며 서양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붕괴된 가치관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자아의 형성과 우리나라의 문화를 소유할 수 있도록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여야 한다.

둘째, 현재의 문화생활을 폭넓게 하고 미래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것에 밑거름이 된다. 전통은 과거의 단순한 유산만은 아니며 과거의 전통이 폭넓고 교육을 통해 이해될 때 더욱 높은 수준의 새로운 문화가 창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과거의 미술품은 단순한 모방과 수용이 아니라, 대상의 올바른 이해와 감상을 바탕으로 하여 현재의 자신의 삶에서 재해석하고 검증하며 오늘날에 맞춰 새롭게 표현하는 것이다. 또한 그것을 자신의 삶에서 활용하면서 전통미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

5) 이성도 외 3인, op.cit., pp.5-12.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다. 따라서 전통은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과거이지만 현재에서 재해석되고 그 정신을 이어 새롭게 탄생할 때 과거를 위한 것이 아닌, 현실의 가치관과 미래의 목표를 위해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우리의 미술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긍심을 갖게 해주고 타 미술문화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전통미술 문화를 보는 미적 감각을 키워주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과 자생적인 미적 감수성을 일깨워 주고 미술문화를 생활 속에서 향유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미술 작품과 현시대의 정신을 바르게 이해하고 판단하며 우리의 역사와 문화적 맥락에서의 주체성이 있는 문화의식과 미적 감각, 비판적 사고를 형성시킨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미술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의 미술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 문화적 판단력을 갖게 한다.

이러한 전통미술의 인식을 통해 그 속에 담긴 정신적 의미와 요소를 바르게 이해하고 전통미술 문화의 미적 단면의 가치와 문화 의식의 주체성을 확립시키며, 가치의 재발견과 창조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전통 문화에 대한 소중함과 우리의 역사적 문화유산들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며, 타 미술문화의 비판적 수용을 통하여 새로운 미술문화를 창조하고 더불어 전통 문화와의 적당한 조화를 통해 전통미술을 바르게 이해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한지공예의 이해

가. 한지공예의 역사

한지란 전통적으로 전해져 온 제작 기법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종이를 말한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종이'라는 말의 어원을 '저피'라는 말에서 찾을 수 있으며, 종이란 것은 결국 '저', 즉 닥을 원래 재료로 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한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현대에 들어서서 종이는 그 사용 용도를 중시하였고 한지 이외에도 양지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서 사용되어진다.[6] 우리나라의 한지는 중국이나 일본에 비하여 많은 저를 사용하여 질적으로 많은 차이가 보이지만, 천여 년에 걸쳐서 각각의 자연환경과 풍토에 따라 각각 다르게 변신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지는 양지의 상대적인 명칭이지만 '한국에서 만들어진 종이'라고 의미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한지에는 많은 세월 속에서 우리나라 민족의 생활정서가 담겨져 있다.

우리나라의 한지는 BC 2-3세기경에 불교가 전래되어 중국에서부터 들어온 것으로 추측되고, 우리나라의 한지 산업은 삼국시대를 거치며 고려시대에 가장 발달하였으며, 조선 후기부터 점차적으로 퇴색되어져 왔다. 먼저 삼국시대는 고유의 한지의 태동기로서, 이 시기 이후부터 한지를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방식으로 제작하였다. 고려시대에는 한지의 발전기였다.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생산자, 생산지, 원료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였고 시행하였다. 불교가 활성화된 당시 사회 · 문화적 배경으로 문신들과 귀족승려들의 주도하에 목판인쇄가 발달하여 두껍고 질기며 광택이 있는 종이의 수요가 증가되었으며, 이에 국가에서는 닥나무의 재배를 전국적으로 하는 것을 권장하였고 관영공방에서는 종이

6) 정혜경, "전통 공예를 응용한 한지 수업 연구: 고등학교 미술 수업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10.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만드는 것을 국가에서 장려함에 따라 종이의 원료인 닥나무가 잘 자랄 수 있게 지리적 조건이 좋은 지소라는 기관을 설치하며 그 곳에 지장을 두기도 하였다.[7)]

조선 전기에는 제지법이 완성기를 맞이했다. 통제기관이 설치되고 기술과 원료가 다양해졌으며 쓰임새 또한 대중화되었다. 일반 서사재료로는 물론 창호, 병풍, 서적, 모자, 우산, 화폐, 장판, 갑옷, 혼서지, 서화용지 등 종이가 여러 분야에서 응용되고 생활용품 화하였다. 이렇게 종이의 쓰임새가 많아지면서 종이는 전국에 걸쳐 생산되었고, 그 어느 시대보다 두께가 얇고 품질이 뛰어났으며 하얗고 질기며 광택이 있어서 서적지 등의 용도에 적당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지제의 쇠퇴기였다. 중국의 혹독한 조공 압력, 폭발하는 수요, 그리고 여러 차례의 전쟁으로 인해 점차적으로 자발적인 창조성이 움츠러들며 획일화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보리, 갈대, 짚과 같은 질이 좋지 않은 부원료를 사용하면서 품질도 나빠졌다. 말기에 이르면서 태지 정도는 제외하고 가공지는 거의 사라졌으며, 일본과 중국에서 수입한 종이가 유통되었다.[8)]

해방이후에는 한지 공업은 붕괴기였다. 해방 후에는 경제 · 정치 · 사회적 혼란과 선 공업 후 농업 정책 등으로 인해 한지의 생산 근거가 매우 약화되었다. 또한 급격히 밀려들어 오는 서양 문물과 같이 값싼 양지가 대량 생산되어 공급됨에 따라 한지 산업은 점점 쇠퇴일로 걸어왔으며, 이젠 겨우 명맥만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에는 대부분 대량생산을 목적으로 기계를 이용하여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법의 편리함을 얻고 있지만, 재생지의 혼합과 화약약품의 사용 등으로 우리나라 전통 한지의 고유한 특성이 사라지고 있다. 한지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원료인 닥도 우리나라에서 거의 생산되고 있지 않으며 외국에서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대부분 한

7)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한국의 장인』(광주: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1997), p.28
8) 이승철, 『종이 만들기』(서울: 학고재, 2001), pp.15-9.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지의 제조업체는 특정 지역에 몰려 있으며, 전라북도와 경상도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 대표적으로 생산되는 한지의 지종은 화선지, 순지, 창호지, 피지, 책지, 배접지, 운용지, 장판지, 색지, 소지, 도번지, 판화지, 초배지 등이다. 이러한 지종들은 한지 중에 저가의 일반적 상품이며, 이마저도 품질이나 제조법의 표시가 없이 유통되어 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수요자들은 제품이나 품질의 차이를 알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전통 한지에 대한 우수성과 보존 가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나. 한지공예의 특성

(1) 한지의 특성

우리나라의 전통 종이인 한지는 서양 종이와 비교하여 한지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있다. 오늘날 전통 한지가 귀중한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선조들이 한지를 이용해 실생활에 끊임없이 활용해 왔으며, 한지의 특성을 이용하여 사용되어지는 범위 또한 서화 · 인쇄용, 신앙의식용, 건축내자용, 그리고 지공예 등 생활 속에서 다양한 용도로 쓰였음에 있을 것이다.[9] 이렇게 종이의 사용이 다양한 용도로 가능한 것은 우리나라의 닥나무 섬유가 우수하고 제지기술의 뛰어남에 원인이 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선조들이 한지를 만들 때 재료의 성질을 충분히 파악했기 때문이다. 전통 한지의 특성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9)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종이문화』, (서울: 학고재, 2001), p.64.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첫째, 장기적인 보존성이 있다.

한지는 여러 번의 공정 과정에서 매우 과학적인 과정을 거치며 만들어진다. 이 중에서 창호지와 장판지 등과 같은 한지는 저백피를 원료로 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질기며 그 수명도 천이나 양지보다도 오래간다. 닥풀을 이용한 접착제를 사용하고 잿물로 표백하는 등의 과정 속에서 섬유의 접착을 좋게 해주고 종이의 강도가 증가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천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도 종이가 보존될 수 있다. 하지만 양지는 황산알루미늄의 사용과 로진사이즈의 처리로 강한 산성을 띠게 되고 세월이 지나서 천천히 가수분해가 진행되어 종이의 열화로 이어진다.[10] 이에 비해 한지는 알칼리성 종이로서 세월이 지날수록 도리어 결이 고와지고 종이의 수명이 천년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한지의 장기적인 보존성은 지속적인 예술적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요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흡수성과 통기성이 있다.

한지는 양지에 비해서 흡수성이 매우 대단하며 모든 수성을 쉽게 흡수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전통적으로 붓과 먹물을 이용하여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기에 여기에 먹물을 적당히 받아들일 수 있는 종이를 제작하였기 때문이다. 한지의 흡수성에 인해 서양 미술 재료의 중심이 되는 기름과는 잘 어울리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지만, 한지는 적절량의 습기를 받아들여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수성의 재료들과 함께 어울려 다양한 표현들이 발달하였다.

또한 한지는 통기성과 햇빛 투과성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선조들은 한지를 창호지로도 많이 사용하였다. 여기서 한지는 섬유사이에 적절한 공간을 가지고 있어 창호지와 같은 경우에는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의 틈을 유지하면서 계절에 따라 반응하여 방의 온도와 습도까지 자연적으로 조절한다. 또한 섬유사이의 미세한 구멍으로 인하여 공기가 교류하

10) 심화숙, 『전통한지공예』, (서울: 전통한지공예가협회, 2005), p.25.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면서 환기를 시켜주어 공기의 정화작용을 한다.[11] 따라서 한지의 흡수성과 통기성, 햇빛 투과성 등은 새로운 미술 분야를 가능하게 하며, 기존의 재료에서 느껴볼 수 없는 미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수공예성이 있다.

한지는 직접 손으로 만드는 종이이며 그 자체로서 공예적인 가치를 지닌다. 한 장씩 만들기 때문에 재료로 흔하지 않으며 종이도 질기며, 종이가 마치 살아서 숨 쉬는 것과 같이 생명감이 느껴지게 된다.

넷째, 고유의 품격성이 있다.

한지의 특성 중에서 동양 고유의 품격성을 배경으로 하는 민족 고유의 미의식이 있다. 한지는 재료의 자체가 지닌 자연적 물성에 오랜 기간 동안 전통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러움이 강조되어 왔다. 한지의 이러한 자연성은 우리나라 민족적인 특이한 조형성을 반영하고 단아한 고전미를 띠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일정한 틀에 맞춰진 인공적인 양지의 경직성에 비하여 자연스런 품격이 드러나고 있다.[12] 따라서 이러한 한지는 우리나라 민족의 오래된 역사를 바탕으로 한 고유의 정서에 잘 맞는 매체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신축적인 가소성이 있다.

한지는 형태의 제작방법과 변형성이 자유롭기 때문에 순수 재료를 이용한 경우이거나 다른 수성 물질을 이용한 다양한 기법의 실험과 표현 매체의 특성을 지닌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작품을 제작할 때 찍기, 엮기, 구기기, 종이 재생하기 등 여러 기법들을 가능하도록 한다. 따라서 한지는 전통적인 회화재료와 물이 함께 공존하는 점을 이용한 특이한 조형성이 발달되어왔다.

---

11) 황혜경, “전통미술 인식을 위한 중학교 한지공예 수업 방안 연구” ,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p.13.
12) 이선원 외, 『종이에서 조형까지』, (서울 :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2000), p.58.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한지공예의 특성

우리나라의 민족은 옛날부터 손으로 하는 특이한 문화 환경 속에서 살아왔다. 따라서 그만큼 우리 민족만이 갖고 있는 감각과 한지의 물성이 서로 만나 이루어낸 뛰어난 생활 공예품이 일상에서 보편적으로 많은 사용이 되어져 왔다.

한지공예 작품들을 찾아보면 일반서민층에서 궁중, 사대부에 이르기까지 사용계층이 다양한 것을 볼 수 있으며, 고르게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솜씨 좋은 장인들이 만들어 여러 장소에 납품한 것과 후기에는 민가에서 만들어 판매하기도 하고 가정에서 소견거리로 만들어서 사용한 작품들도 많이 있다. 솜씨 좋은 장인들이 만든 공예품들은 섬세하며 규격이나 무늬를 오린 솜씨, 색상의 배열 등이 뛰어난 반면, 일반 서민들이 소견거리로 만든 공예품들은 솜씨가 낙후되어진 것이 많다.[13] 이러한 것은 실용적인 생활필수품으로서 기능성과 함께 장식적인 효과를 갖추며 색의 아름다움과 조형미, 선을 잘 조화시켜서 만든 공예의 본질적인 면에 충실한 것이다.

또한 장식된 문양에서도 보이듯이 기복신앙, 종교적 상징성 등 예술의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한지라는 재료의 특성으로 인하여 포근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며, 오랜 시간 동안 지니고 사용하여도 정감을 더해가는 것이 한지공예의 특징이다. 한지공예품들이 생활품으로 많이 쓰인 이유는 한지의 재질이 가벼우며 부드러운 질감을 가지고 있고, 보온성과 투명성, 강건성, 유연성 등의 특수한 성질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밀접한 자연의 빛깔, 다양한 색상의 조화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한지를 손쉽게 다룰 수 있다는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실생활에 많이 쓰였다.

13) 황혜경, op.cit., p.20.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처럼 한지공예품은 다양한 계층에서 골고루 사용되었고, 오색한지에서 색채의 아름다움과 조형미, 정감어린 재료, 전통문양, 폐품활용 목적, 쉽게 다룰 수 있는 특성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다. 한지의 종류

한지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대체로 생지와 생지를 가공시킨 숙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생지는 매우 질기며 표면이 거칠며, 섬유질이 고르지 못하기에 수분이나 물감과 같은 이물질을 잘 흡수하지 못하고 불규칙하다. 숙지는 대부분의 생지에 물을 머금고 밟거나 다듬질하여 만든 한지이다. 이것은 필요에 따라 물을 머금거나 염색이나 표백하여 다듬질하는데, 이때 일광 표백을 이용해 만들어진 종이는 오랜 시간이 흘러도 부패되거나 변색되지 않으며 표면이 고르며 윤이 난다.[14]

단종 2년(1454)에 편찬되어진 '전라도 궐공조',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해 한지의 종류를 색상, 형태, 용도, 원료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1) 색채에 의한 분류

백색의 닥종이로서 구름과 같이 하얗다는 것에서 나온 명칭으로 운화지(雲花紙)가 있고, 대나무 속껍질처럼 하얗고 얇은 것에서 나온 종이라는 명칭으로 죽청지(竹靑紙)가 있으며, 고정지 또는 그것과 같은 누런 빛깔의 종이를 가리키는 황지(黃紙)가 있다.[15]

---

14) 이승철,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한지』, (서울 : 현암사, 2002), p.123.
15) 홍연희, "중등미술교육에서 한지공예의 특성을 이용한 조형작품 지도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p.21-2.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형태에 의한 분류

간지(簡紙)와 장지(壯紙)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 간지는 편지 등에서 쓰이는 두루마리 종이를 말한다. 장지는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종이이며, 길이가 3.84자, 넓이가 2.88자이다. 이 밖에 대호지(大好紙), 게련지(揭練紙), 유둔지(油芚紙) 등이 있다.

(3) 용도에 의한 분류

창문에 붙이는 데 쓰이는 종이를 가리키는 창호지(窓戶紙), 연이나 부채 등을 만들 때 사용하는 매끄럽고 얇은 종이인 편자지(扁子紙), 세화를 그릴 때 쓰이던 종이로는 세화지(歲畵紙) 등이 있다.[16]

(4) 원료에 의한 분류

닥나무로 만든 저지(楮紙) 또는 닥지, 닥나무 껍질에 이끼를 섞어서 만든 백태지(白苔紙), 다른 원료와 목화를 섞어서 만들어 낸 백면지(白綿紙)가 있다. 이외에도 한지의 원료로는 뽕나무나 귀리, 짚, 소나무 껍질, 버드나무, 삼, 율무, 갈대 등이 있었으나 가장 많이 쓰인 것은 닥나무였다.[17]

이 밖에도 생산지에 의한 분류로 나눠지는 전주지(全州紙), 청풍지(淸風紙), 평강지(平康紙)와 제조 기법에 의해 나눠지는 도련지(搗練紙), 태지(苔紙)로 나누어지며, 한지는 분류에 따라서 그 종류도 다양하다. 하지만 지금은 서양화된 한지로 자취를 거의 감췄으며 장판지나 창호지, 화선지, 소지, 배접지 정도로 겨우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16) 홍연희, op.cit., p.22.
17) ibid., p.21.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2절 한지공예의 교육적 활용 가치

우리나라의 선조들이 남겨준 한지공예는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이며 전통공예의 한 종류로, 아름다움과 실용성이 겸비되어진 일반적인 공예로서 선조들의 사랑과 애환이 담겨있다. 즉, 전통미술은 단순한 감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편리성을 더해주는 실용적 가치나 심미적 가치 및 선조들의 생활을 느낄 수 있는 정서적 가치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조들이 물려준 전통에 자부심을 갖고 이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발전 시켜야 한다.

첫째, 한지의 특성을 통해 다양한 표현 방법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전통의 종이인 한지는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질적으로도 뛰어나다. 한지는 흡수성이 좋기 때문에 다양한 수성의 재료들과 함께 어울려 독특한 표현을 할 수 있고, 수공예성이 있어서 한지를 한 장씩 만들기 때문에 재료로서 흔하지 않기 때문에 독특한 작품을 만들 수 있다. 또한 한지는 얇으면서도 부드럽고 매우 질긴 특성을 지녔기에 표현의 형태가 평면적인 것에만 제한되지 않고 형태가 입체적인 것까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 표현을 넓힐 수 있으며, 다른 재료를 갖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미술 재료로서 가치가 높다.[18] 그리고 한지의 사용이 용이하고 실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표현 방법을 경험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전통미술 재료인 한지를 활용하여 전통미술에 대한 흥미를 갖고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도록 하며, 이러한 한지의 활용을 통해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키고 다양한 표현 방법을 경험하게 하면서 한지를 표현하는 가능성을 높여준다.

---

18) 황혜경, op.cit., p.77.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둘째, 다양한 한지공예를 통해 미적 감각과 창의력을 길러준다.

한지공예는 선조들이 실용적인 기능과 미적 표현이 접목된 미술품이며, 손끝으로 사용되어지는 촉각으로 만들어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지공예 교육은 촉각을 통하여 감각을 키우는 역할을 한다. 또한 표현방법을 다양하게 갖고 있는 한지를 이용한 한지공예는 제작방법과 용도에 따라 만들어지는 기물의 종류가 다양하였다. 한지처럼 다른 재료를 사용하여 다양하게 기물을 표현할 수 있고, 사라져가는 한지공예의 다양한 제작 방법과 감상을 통하여 전통미술에 대한 재발견과 재정립을 하는 경험을 얻고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한 우수성을 이해하며 미적 감각과 창의력을 높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한지공예의 지도를 통하여 볼 때, 학생들이 한지를 가지고 다양한 표현 방법을 직접 제작해보면서 한지의 특성을 알아볼 수 있고, 한지를 사용하여 생활용품을 제작해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이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을 통해 미의식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한지를 통하여 미적 표현의 창의적인 활동과 표현력을 높일 수 있고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느낄 수 있다. 더 나아가 현대적 감각에 근거한 새로운 형태로서의 재구성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의 창조와 발전하는데 그 교육적 의의가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Ⅲ. 전통 한지공예의 기법과 새로운 활용 방안

제1절 한지공예의 표현 기법

조선시대에는 실생활에서 종이가 여러 가지의 공예품으로 활용되었고 그 자체만으로도 문구용품이나 고건축 의장으로도 이용되기도 하였다. 장판지, 창호지, 벽지, 부채, 우산, 휘장 등의 생활용품이나 놀이용품으로 사용되었고, 한지공예품은 실용성에 비중을 두어 다른 재료로 만든 기물에 비해서 비용이 적고 제조가 쉬웠기 때문에 여러 종류로 다양하게 만들어졌다. 하지만 그 동안 여러 번의 전쟁으로 소멸되기도 하였고 각종 의식에 사용된 기물은 소각하여 없애버리는 풍습으로 하여금 오늘날 까지 전해진 것은 극히 드문 것이다.

한지공예품은 종이를 이용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서민 생활에서의 문화적 유산에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선조들의 실생활에 뿌리 깊게 자리잡은 생활필수품이며, 화려하면서도 소박하여 여인들의 애용품이기도 하였다. 또한 한지공예품은 서민들의 생활을 풍족하게 하는 민예품으로도 만들어졌다. 한지를 이용해 만든 것으로는 각종 생활용품을 비롯해 국가적으로는 군사용품에 이르기까지 한지의 사용범위가 다양하였다. 그리고 한지를 다루는 방법도 매우 다양해 실용성과 장식성을 충족시키고, 긴 세월동안 필요에 의하여 만들어진 생활용품으로 발전해 왔다.

한지공예는 제작기법에 따른 분류와 용도에 따른 분류로 나눌 수 있으며, 크게 지승공예(紙繩工藝), 지호공예(紙戶工藝), 지화공예(紙花工藝), 지회공예(紙繪工藝), 전지(剪紙) 및 지장공예(紙粧工藝), 교염(絞) 및 판염공예(板染工藝)등으로 나뉘며 현대적 기법으로 닥종이 인형 등으로 나눌 수 있다.[19]

---

19) 임영주, 상기호, 『오색한지공예』, (서울: 한길 출판사, 1997), pp.38-94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 지승 및 지호공예

가. 지승공예

'지승'이라는 단어를 보면 종이라는 뜻의 '紙'에 꼰다는 뜻으로 '繩'으로 종이 · 지노 · 노끈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따라서 지승은 종이로 꼰 노끈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지노'나 '노엮개' 또는 '노나 끈'으로 불리기도 한다.[20] 지승공예기법은 종이를 좁고 길게 잘라서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비벼 꼬며 노끈을 만들고 이것을 엮어서 여러 가지의 기물을 만드는 것이다. 조선시대의 공예는 대부분 장인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지승공예는 장인 외에 책을 가까이 보던 선비나 상류사회의 양반들 또는 중상급 이상의 노인들이 소일거리로 한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종이는 부드럽고 질감이 없지만 연약하지 않으며, 단순하고 소박하면서 종이의 유연성을 이용해 용도와 기능면에서도 다양하고 독특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지승공예는 어떤 방식으로 짜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기하학적 무늬가 나오게 되는데, 인쇄되어진 서책과 같은 종이를 사용하게 되면 자연스러운 무늬를 이루고 오히려 운치를 더해준다. 또한 질긴 닥지를 꼬아서 만든 다음 기름을 먹이거나 흑칠, 주칠 등 옻칠을 하여 보존성을 향상시켰다. 지승공예 기법을 이용하여 멜빵, 망태기, 합자, 바구니, 화살 통, 쌈지 방석 등을 비롯하여 삼과 지승을 섞어서 짠 미투리, 옻칠을 하여 방수 처리를 한 대야, 쟁반, 발, 돌상, 요강, 표 주막 등 다양한 종류의 생활용품들을 만들었다.[21] 이들 제품의 특징은 화려하지 않고 검소하고 소박하며 운치가 있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았다.

---

20) 황혜경, op.cit., p.22.
21) 심화숙, op.cit., p.40.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1-1> 지승공예: 구절판

<그림1-2> 지승공예: 맷방석

<그림1-3> 지승공예: 망바구니

<그림1-4> 지승공예: 지승키

나. 지호공예

지호공예는 물에 한지를 녹인 다음 밀풀을 섞어, 그것을 절구에 곱게 찧고 점토와 같이 만든 다음에 이것을 일정한 크기의 틀 안에 부어서 형태를 만들거나, 집에서 쓰는 그릇 위에 이를 덧붙여 형태를 만든 뒤에 그 위에 물을 스며들게 하거나 색지를 붙여 완성시킨 공예품이다. 여기서 사용되는 종이는 창호지로 쓰다가 버린 폐지나 글씨 연습에 사용되거나 학습한 종이, 파지 등을 가지고 활용해 만들었고, 벌레의 피해를 막고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위에 들기름이나 콩기름을 먹였다.[22] 그릇이 부족했던 농가에서는 표주박, 합지, 합 등으로 만들

22) 고민정, “중학교 디자인 교육을 위한 한지공예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13.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어서 주로 사용했으며, 종이탈도 지호기법으로 많이 만들었다.

지호공예는 손재주가 있는 서민들이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들이 대부분이었고, 가끔가다 대충 오려진 문양들에서 장인들의 솜씨로 보기 어려운 미적 감각이 뒤떨어지는 작품들도 볼 수 있다.

<그림2-1> 지호공예: 구절판

<그림2-2> 지호공예: 함지박

<그림2-3> 지호공예: 오리세트

<그림2-4> 지호공예:
달항아리 화로탁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지화 및 지회공예

가. 지화공예

지화공예는 한지를 여러 장 겹쳐서 일정한 크기로 잘라 꽃을 만드는 기법으로 색 한지를 주로 사용해 화려하게 만들었다. 오래전에는 쉽게 꽃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궁궐이나 민가 할 것 없이 길흉사일 때에는 조화를 반드시 썼다. 또한 국가의 행사 때에는 생화 대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종이꽃이나 장원 급제자에게 내리는 어사화를 만드는데 사용되었고, 궁 안의 행사 때나 민속놀이, 무속, 불교문화 등에서 많이 쓰였다.[23]

<그림3-1> 지화공예: 따리화

<그림3-2> 지화공예: 목단

<그림3-3> 지화공예

23) 황혜경, op.cit., p.24.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나. 지회공예

지회공예는 크기가 일정한 기물의 골격을 만든 후, 흰 한지를 두세 겹 붙여 그 위에 오색전지를 단색 또는 이색, 사색으로 붙인다.[24] 바탕면에 지장공예와 같이 문양을 오려서 시문하지 않고, 물감(담채, 당채, 먹물)을 사용해 문양을 그려서 마감한 작품을 말한다. 주로 그것에 인화문과 당초문을 그려 넣었다.

<그림4-1> 지회공예: 갓집

<그림4-2> 지회공예: 빗접

3. 전지 및 지장공예

가. 전지공예

전지공예는 다른 공예품과 다르게 화려한 색채의 형태를 조화가 잘 된 공예품이며 특유의 장식적인 효과로 인해 여성들이 간직하며 사용하였다. 또한 그 시대의 생활 속에 신앙적인 의미까지 포함된 여성취향의 감각이 잘 나타나 있다. 종이로 접시나 상자를 만들고 그 위에 화려한 오색지를 애용해 옷을 입힌 다음, 색종이를 오려 문양을 장식하거나 두

24) 홍연희, op.cit., p.25.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꺼운 종이를 이용해 문양을 오려서 양각이나 음각을 하여 장식하는 것이다. 여기서 사용된 색지는 한지를 전통 천연 염료를 이용해 염색한 것이며, 주로 적(赤), 청(靑), 황(黃), 백(白), 흑(黑) 오색이 기본이다.[25] 고유한 색을 가지고 있는 무늬는 장식미를 높여준다.

전지공예는 자연의 은은하면서 오색의 찬란한 색을 우리의 집에 그대로 가져다 놓아서 우리의 선조들의 독특한 미적 관점을 엿보게 한다. 이것은 궁중과 사대부 집안, 일반 서민층까지 고르게 사용되어졌다.

<그림5-1> 전지공예: 오색 삼합 상자

<그림5-2> 전지공예: 소반

<그림5-3> 전지공예: 지우산

<그림5-4> 전지공예: 10서랍콘솔

25) 황혜경, op.cit., p.25.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나. 지장공예

지장공예는 다른 공예품과 달리 형태와 화려한 색채를 잘 조화시킨 장식적인 효과를 지닌 안방 치장의 부속품이라 할 수 있고, 그 시대에 사람들의 생활 속에 신앙적인 의미까지 포함된 여성 취향의 예술의 감각이 잘 나타나있다. 여러 가지의 색지를 오려 무늬를 만들고 기물을 장식하는 지장공예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먼저 종이를 여러 겹 붙여서 두터운 종이인 후지를 만들고 그릇 형태를 이룬 그 표면에 기름을 칠하거나 또는 옻칠을 올려 완성하는 지장기법이 있다.[26]

이것은 표면에 칠을 하여 튼튼하게 만들어서 가죽과 같은 질감을 내기도 하였으며, 표면에 요철로 무늬를 넣기도 하였다. 대체로 쌈지, 빗집 합, 반짇고리 등 작은 기물을 만들 때 이용되었다. 또 다른 하나는 형태를 갖고 있는 목골 지장기법이다. 이것은 종이만 마르게 하여 마감하기도 하고 그 위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려 마무리하기도 하였다. 대체로 농, 장, 함, 고비, 예물, 상자, 보석함, 지통 등 큰 기물을 만들 때 이용되었다.

<그림6-1> 지장공예: 안경집

<그림6-2> 지장공예: 종이항아리

26) 황혜경, op.cit., p.26.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6-3> 지장공예: 팔각반짇고리 <그림6-4> 지장공예: 지장서류함

4. 교염 및 판염공예

염색 기법 중의 대표적인 방법인 교염의 명칭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며 대표적으로 '의식적인 점무늬', '알록달록한 색'이라는 뜻인 플랑기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영어로 반다나라고 하는 것은 짙은 색 바탕에 흰 색 무늬를 넣은 커다란 천을 말하고, 일종의 이것을 홀치기염색이라고 하며 귀족 의상이나 특별한 옷에 많은 홀치기를 하는 기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교염 또는 홀치기염색으로 불린다.27)

교염은 끈이나 실 또는 나무껍질 등으로 천의 일부분을 묶거나 엮기, 접기, 홀치기, 바느질을 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한 뒤, 그것을 염색하여 묶인 부분이 염색 되지 않도록 하는 기법을 말한다. 또한 그 염색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문양을 의미하기도 한다. 대부분 이러한 기법은 실을 사용하지만 묶는 방법과 묶는 강약, 실의 두께에 따라 형태를 다르게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교염은 묶는 방법이나 접는 방법, 바느질을 이용한 방법 등에 따라서 다양한 무늬로 표현할 수 있다.

옛날부터 영국이나 인도에서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판염은 호두나 복숭아의 씨앗 등의 절단면의 모양과 나뭇잎의 모양을 이용하며

27) 서재행, 『공예 염색 기법』, (서울: 미진사, 1994), p.56.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목판이나 아크릴판 등의 각종 판에 원하는 디자인을 조각하고 그 위에 염료를 묻힌 후, 다른 천이나 그 밖의 염색할 수 있는 것에 인해 무늬를 내는 염색법이다. 판염은 연속으로 무늬를 표현할 수 있어서 반복적인 무늬를 원할 때, 사용되는 기법이다.

<그림-7> 교염공예

5. 닥종이 인형

닥종이 인형은 현대적 감각에 맞는 전통미술을 표현한 한지공예라고 말할 수 있으며, 형태와 재료 그리고 표현 기법이 사람들에게 사랑 받으며 새로운 조형분야가 만들어졌다. 또한 한지를 물들이고 접고 붙이며 전체적인 형태 혹은 색채 등을 중시하여 감성적 주제를 표현하며 정밀하고 세밀한 표현으로 인형을 이용하여 조형적인 미로 완성되는 공예품이다.[28]

28) 이애덕, “닥종이인형의 조형에 대한 연구-작품 제작 중심으로”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p.24.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8> 닥종이 인형

이와 같이 종이를 이용한 한지공예품은 서민 생활의 문화유산에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선조들의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생활용품이자 소박하면서도 화려하여 여인들의 사랑을 받은 애용품이기도 하였다. 오늘날 현대적 감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공예의 전통미를 재창조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고, 이러한 전통미술을 창조 · 발전 · 계승시켜야 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2절 한지공예기법의 새로운 활용 방안

오늘날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현대 문물을 더욱 중요시하고 이러한 현대생활에 적응되어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갑작스럽게 전통에 치우친 학습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쉽게 지루함을 느낄 수 있으며, 어려움을 느껴 금방 포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대적 기법인 꼴라주를 한지공예에 접목시켜 효과적인 학습과 더불어 흥미를 유발시켜주고자 한다.

꼴라주 기법 중에서도 종이만을 사용하여 작품을 만드는 '파피에꼴레' 기법과 요철이 있는 물체 위에 종이를 대고 연필이나 색연필 등 색채도구를 이용하여 문질러 나타나는 무늬를 이용하여 작품을 만드는 '프로타주의' 기법, 여러 사진을 이어 붙여 작품을 만드는 '포토몽타주' 기법을 기존에 표현되어진 한지공예의 기법과 서로 접목시켜 효과적인 새로운 방안을 창조해보고자 한다.

1. 파피에꼴레를 접목한 한지공예

가. 파피에꼴레의 개념

파피에꼴레는 꼴라주의 시작이 된 기법이다. 먼저 꼴라주는 '풀칠', '풀칠하여 붙이기' 등의 뜻을 지닌 프랑스어이며, coller, 즉 '풀로 붙이다'에서 유래된 말이다.[29] 다양한 물체를 붙이는 꼴라주 기법이 미술에

29) 송점순, "현대미술에서의 꼴라주 기법 연구-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미술 · 디자인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p.8.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1912년 때부터로 보는데 그 당시부터 '꼴라주'나 '파피에꼴레'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다. 오래전부터 종이는 평면적인 회화의 재료로 일찍부터 사용되어왔으나 작품에서는 독립된 소재로 거의 사용되어지지 않았고, 미술사에서 조형성을 보인 오브제로서의 등장은 20세기 초 입체주의 때 파피에꼴레였다. 여기서 파피에꼴레는 종이 따위를 찢어 붙이는 꼴라주의 일종이며 '꼴레'란 풀로 붙인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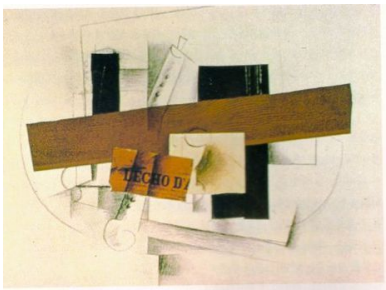
미술사에 있어 파피에꼴레라는 말이 등장하게 된 시기는 종합적인 입체주의 때였고 피카소(P.Picasso)와 브라크(G.Braque) 등이 대표적인 작가였고, 화면에 생동감을 불어넣기 위해 신문지나 벽지, 상표, 우표 등의 실물을 붙여서 화면을 구성하는 것에서 그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 피카소나 브라크는 화면의 미적 구성을 위한 조형의 수단으로 여러 매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파피에꼴레가 처음으로 등장한 최초의 작품은 브라크의 <과일 접시와 유리잔> (1912)으로 알려져 있으며, 입체주의가 분석적 시대에서 종합적 시대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생겨났으며, 이것은 일종의 현실성을 노린 것이다. 이러한 기법은 큐비즘의 화가들에게 머물지 않고 유행을 가져다 왔는데, 다다이즘(Dadaism), 초현실주의(Surrealism)로 확대되었으며 단순한 인쇄물을 붙이는 데 끝나지 않고, 모래 금속물이나 털, 기타 일상적인 물질을 바탕에 붙이는 꼴라주의 기법으로 확대되었다.[30] 이로써 형태가 맞춰지면서 생겨나는 효과로 인해 색채를 바탕에 다시 들이는 종합적 입체주의가 나타나게 되었다.

30) 열화당편집부, 『현대미술용어사전』, (서울: 열화당, 1978), p.21.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9-1> 파피에꼴레: 조르주 브라크 (Georges Braque, 1882-1963), <테노라가 있는 정물> (1913)

<그림9-2> 파피에꼴레: 조르주 브라크 (Georges Braque, 1882-1963), <과일 접시와 유리잔> (19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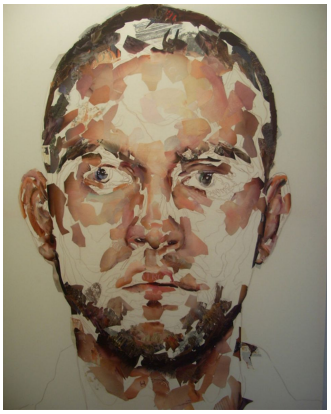
종합적 입체주의 시대 때 평면적인 색채구성의 방식으로 꼴라주나 파피에꼴레의 방법이 선택되기 시작하였고, 손으로만 사용하여 그리던 회화기법에 마침표를 찍는 혁신을 가져다주었다. 회화에 있어서 파피에꼴레의 사용은 새로운 가능성과 아이디어를 무한하게 제공해주고 있고, 의식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변화를 만들어내어 입체주의의 구성을 전개시켰다. 이는 환영감을 창조하기보다는 형태, 표현과 질감에 있어서 종이, 벽지, 신문, 나무, 헝겊, 악보 등을 바탕 일부에 붙여 입체주의의 정지시킨 바탕에 새로운 조형적 효과와 물체감을 주었다.[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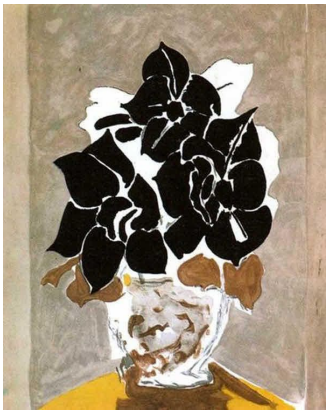
이와 같이 기성의 물체를 그림에 붙이게 되면서 그림만으로 표현될 수 없던 현실감이 작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실감을 위해서 필연적인 바탕 구성이 요구되어지는데, 이는 손으로 그려진 부분에서 물체가 떠오르지 않게 마무리가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피카소와 브라크는 회화에서 재현을 배제하지 않고 현실성을 주장함으로써 그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고, 이후 파피에꼴레와 꼴라주는 초현실주의를 비롯한 현대미술의 주요한 기법과 개념으로 수용되었다.

31) 이일, 『현대미술의 시각』, (서울 : 미진사, 1985), p.58.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9-3> 다양한 작품의 파피에꼴레

나. 파피에꼴레와 지호공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호공예는 물에 한지를 녹인 다음 밀풀을 섞어, 그것을 절구에 곱게 찧고 점토와 같이 만든 다음에 이것을 일정한 크기의 틀 안에 부어서 형태를 만들거나, 집에서 쓰는 그릇 위에 이를 덧붙여 형태를 만든 뒤에 그 위에 물을 스며들게 하거나 색지를 붙여 완성시킨 공예품이다. 여기서 파피에꼴레의 기법과 접목할 방법은 있는 그릇 위에 덧붙여 떼어내는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다.

먼저 한지를 그릇 위에 덧붙이는 과정에서 잡지나 신문 등을 덧붙여 형태를 만들어내어, 그 위에 물을 스며들게 하여 작품을 완성시키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지호공예의 방식과 똑같지만 한지 말고 다른 종이도 같이 이용하여 만든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지호공예와 같은 방식으로 완성되어진 작품 위에 잡지나 신문, 색지 등을 찢어서 표면에 붙이며 작품을 완성시키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작품의 원하는 표면에 원하는 종이의 크기와 방향, 위치로 붙여서 의도적으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의의를 둔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다. 파피에꼴레와 닥종이 인형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닥종이 인형은 현대적 감각에 맞는 전통미술을 표현한 한지공예라고 말할 수 있으며, 한지를 물들이고 접고 붙이며 전체적인 형태 혹은 색채 등을 중시하여 감성적 주제를 표현하며 정밀하고 세밀한 표현으로 인형을 이용하여 조형적인 미로 완성되는 공예품이다.

먼저 피복전선을 이용하여 인형의 뼈대를 만든 후에 한지를 구겨서 뭉친 것을 머리 부분에 끼우고 다른 한지로 표면을 덮어 매끈하게 붙여준다. 같은 방법으로 몸통을 만들어 주고 팔과 다리는 한지를 겹겹이 붙여주어 형태를 만들어 주며, 손과 발은 따로 만들어서 붙여준다. 이렇게 완성된 사람 형태의 인형에 신문이나 잡지, 색지 등의 일반적인 종이를 활용하여 옷과 신발, 머리카락 등의 표면적인 것을 접목시킨다. 머리카락 색에 맞는 잡지의 한 부분을 잘라 찢어 붙이는 방식이나 종이끼리 엮어서 붙이는 방식으로 새롭게 활용할 수 있으며, 눈과 입 또한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옷 부분도 신문지나 잡지를 이용하여 색의 균형을 맞추며 붙여주고, 신발 또한 색지를 이용하여 찢어 붙여주는 방식으로 완성시킨다.

이러한 방법으로 새롭게 닥종이 인형을 완성시키며 이것을 꼭 한지를 이용해야 완성시킬 수 있는 공예법이 아닌 파피에꼴레의 기법을 서로 잘 조화를 시켜 완성하는 것에 의의를 둔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활용하면 꼭 반드시 지호공예와 닥종이 인형의 기법뿐만이 아니라 다른 한지공예의 기법들도 이처럼 파피에꼴레의 기법과 잘 접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프로타주를 접목한 한지공예

가. 프로타주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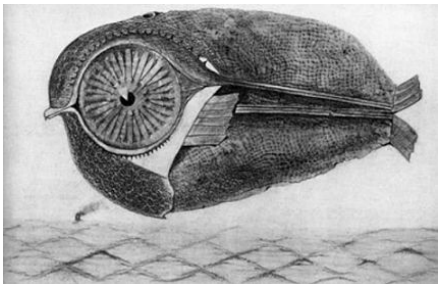
프로타주란 초현실주의의 회화기법의 하나이며 원래의 뜻은 마찰이라는 뜻의 프랑스어 프로테르(frotter)에서 나왔으며, 프로테르는 본래 얇게 칠한다는 뜻이 있다. 프로타주(frottage)는 단순하게 문지르면서 물건의 표면에 질감이 숨어 있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시각적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드로잉 기법이다. 또한 여기서 사용되는 물체는 나뭇잎이나 나뭇조각, 시멘트 바닥, 단추, 동전, 기타 요철이 있는 물체 등이며, 이것 중에서 사용할 대상물 위에 종이를 올려놓고 연필이나 색연필, 크레용, 숯 등으로 문질러 종이에 베껴지는 무늬나 우연적인 효과를 응용하는 기법이다. 이것은 의도적인 드로잉에서 우연에 의해 질감의 효과를 보탤 수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의 흥미를 얻게 해준다.[32)]

이러한 프로타주는 1925년에 에른스트가 처음으로 시도하였고, 이후에 초현실주의의 작가들이 우연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 자주 이용되었다. 동양의 탁본(拓本)처럼 돌 · 금속 · 나무 등의 표면에 종이를 올려놓고 먹으로 문지른 뒤, 그 모습을 종이에 옮기는 방법으로 그림을 베끼고 계획적으로 이것을 화면에 맞춰 효과를 얻는 것에 있으며, 이 시기의 효과는 오늘날에 판화에서 보여 지는 것과 다르다. 대표적인 프로타주의 작품은 에른스트의 <박물지(博物誌)>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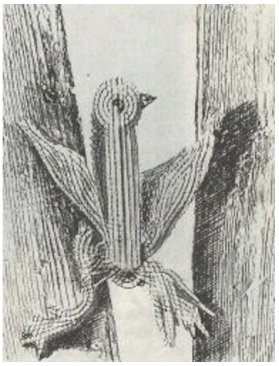
32) 서정아, “프로타주 기법을 활용한 탠저블 인터페이스 작품 표현 연구-인터랙티브 그림책, ‘[Draw me] 도마뱀을 찾아서’를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p.7.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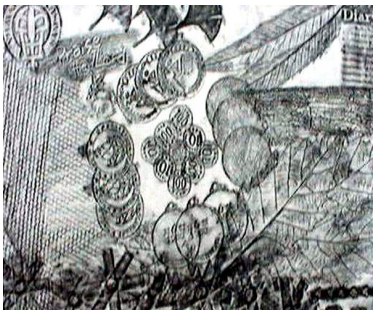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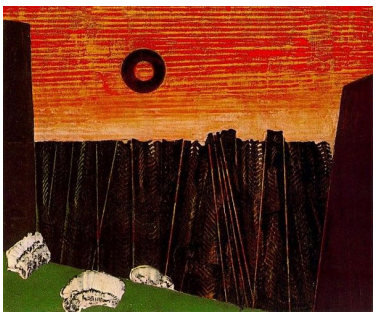
<그림10-1> 프로타주: 막스 에른스트 (Max Ernst, 1891-1976), <박물지(Histoire naturelle)>(1926)



<그림10-2> 프로타주: 막스 에른스트 (Max Ernst, 1891-1976), <시계의 기원>

프로타주를 이용해 만들어 낸 이미지는 세련된 것 보다 솔직하고 꾸밈이 없는 편안한 느낌을 받으며,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표면의 화면에 강도와 굵기가 같도록 질감을 칠해도 아래에 있는 물체의 표면에 따라 칠하는 도구의 진하기가 옅거나 짙게 남겨지는 데에서 오는 재미가 있다. 반면에 물체의 표면에 섬세한 표현을 위하여 꼼꼼히 칠해도 원본과 그 위에 덧붙인 종이의 위치 변화와 그리는 도구의 각도와 힘에 따라 표현되는 것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특성은 작품을 기획하는 것에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프로타주 기법은 종이 밑에 물체가 가진 본래의 질감이 종이 위로 옮겨진 다는 것에 의해 색다른 표현을 할 수 있어 실생활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법으로 사료된다.





<그림10-3> 다양한 작품의 프로타주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나. 프로타주와 지회공예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지회공예는 일정한 크기로 물체의 골격을 만든 후, 흰 한지를 두세 겹 붙여 그 위에 오색전지를 단색 또는 이색, 사색으로 붙이고, 바탕 면에 지장공예와 같이 문양을 오려서 시문하지 않고, 물감(담채, 당채, 먹물)을 사용해 문양을 그려 완성시키는 공예품이다.

프로타주와 접목시키기 위해 먼저 지회공예를 만드는 방법과 같이 일정한 크기로 만들고 싶은 물체의 골격을 만든 후, 아무 색이 없는 한지를 두세 겹 붙인 후에 일단 놔둔다. 다음으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뭇잎이나 동전, 클립 등의 위에 흰 한지나 오색한지를 덮고 원하는 색의 색연필이나 크레용 등으로 문질러 그 무늬를 한지에 옮겨 넣는 작업을 한다. 작업해 놓은 작품에 프로타주 기법을 사용한 한지를 원하는 모양과 위치에 붙이고, 바탕 면에 문양을 그려 넣어 작품을 완성시키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지회공예의 큰 틀을 깨지 않고 프로타주를 단순하게 접근하여 만들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지회공예와 같은 방식으로 완성되어진 작품 위에 문양만 프로타주 기법으로 만들어 붙이는 것이 있다. 이것은 오색한지에 넓은 면적의 무늬를 새겨 넣은 후, 문양의 모양대로 오려서 완성된 지회공예 작품에 붙여 완성시키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보다 쉽게 프로타주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여 프로타주를 활용한 지회공예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포토몽타주를 접목한 한지공예

가. 포토몽타주의 개념

현대 사회에서 사진의 활용은 미술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폭넓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더욱 확대되어지고 있다. 사진은 미술의 한 영역으로서 기술적인 발달과 더불어 미술사와 문화적인 흐름에 따라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였다.

포토몽타주란 사진(Photo)과 몽타주(Montage)의 합성어이며 여기서 몽타주의 뜻은 '조립하는 것'을 의미하는 프랑스어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단편을 조합함으로써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방법을 뜻한다.[33]

즉, 사진을 합성하는 것, 또는 사진의 단편적인 부분을 합성하는 것으로 작품에 사진을 개입시키는 기법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구성방식으로 한다. 또한 사진을 오려 신문 조각이나 드로잉과 함께 붙여가면서 사진의 '낯설게 하기'라고 부르는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결합시키는 기법을 가리킨다.

포토몽타주라는 용어를 만들어 낸 존 하트필드는 포토몽타주를 합성사진의 기법을 이용하여 예술의 수단이 아니라 전달의 수단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성공시켰다. 이것은 변칙적이고 의미가 상반되는 것을 지닌 서로 다른 구조를 응용하고 사진을 창조의 도구로서 사용하는 경우로 보고, 구조가 서로 대비되는 설정으로 체계적인 혼란스러운 효과에 몰두하는 것을 포토몽타주의 개념으로 본다.

---

33) 정미옥, "포토몽타주(Photomontage)를 활용한 인물화 지도 방안 연구-중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p.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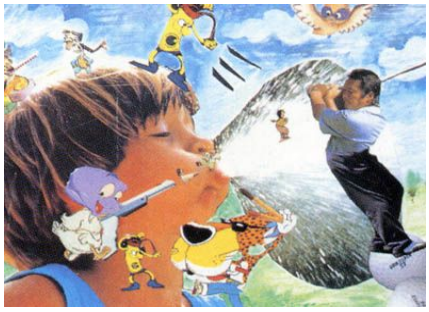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11-1> 포토몽타주: 존 하트필드 (John Heartfield, 1891-1968)

<그림11-2> 포토몽타주: 김아영 <이페메랄 이페메라> (2007)

이러한 포토몽타주는 필요한 부분의 사진을 오려 재조립하여 새로운 의미를 갖는 합성된 이미지를 만드는 기법으로, 포토몽타주의 영역은 조각으로 나눠진 사진들을 이용하는 것에만 제한된 것이 아닌 사진에 글씨나 그림, 색깔을 덧붙이면서 다양하고 독특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서로 관계가 되지 않는 이미지를 합성시키면서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자유로운 이미지를 창조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11-3> 다양한 작품의 포토몽타주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나. 포토몽타주와 지화공예

앞서 제시한 것과 같이 지화공예는 한지를 여러 장 겹쳐서 일정한 크기로 잘라 꽃을 만드는 기법으로 색 한지를 주로 사용해 화려하게 만들어 완성시키는 공예품이다.

한지로 꽃을 만드는 기법인 지화공예를 포토몽타주의 기법과 접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먼저 색 한지를 이용하여 지화공예를 만드는 방법으로 꽃을 여러 송이 접어둔다. 다음으로 꽃과 어울리는 풍경의 사진들을 찍거나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들을 이용하여 서로 상반되는 사진을 합성시키거나 서로 조화가 되는 사진을 합성시키는 등 하나의 액자 속에 붙여준다. 그리고 만들어 두었던 꽃을 포토몽타주의 기법을 이용하여 만든 액자 속에 조화를 이루게 하여 붙여 작품을 완성시키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지화공예의 방식에 현대적 기법인 포토몽타주 기법을 배경으로 넣어 전통과 현대의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에 의의가 있다.

앞서 제시한 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큰 하드보드지에 자연을 나타내는 사진들을 합성하여 완성시킨 이미지 위에 한지로 만든 꽃을 붙인다던지 황폐한 도시를 나타내는 사진들을 합성하여 완성시킨 이미지 위에 한지로 만든 꽃을 붙이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희망과 좌절을 나타내는 사진들을 합성하여 완성시킨 이미지 위에 한지로 만든 꽃을 붙여 상반되는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방식으로 지화공예와 포토몽타주를 접목시켜서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미지를 창조할 수 있다는 큰 의의를 지니게 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4. 꼴라주를 활용한 한지공예의 교육적 효과

지금까지 전통적 공예인 한지공예와 현대적 기법인 꼴라주를 접목한 새로운 방식의 미술교육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전통적 한지공예와 현대적 꼴라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교육적인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재료관찰과 실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창의력이 향상된다. 먼저 꼴라주의 다양한 기법과 재료에 대한 관찰은 뛰어난 재능이 없어도 어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어떠한 재료라도 수업에 활용시킬 수 있으므로 학생들에게 재료에 대한 관찰과 실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제공된다. 여기서 종이의 경우에는 찢기, 접기, 뭉치기, 구부리기 등이 있으며, 다른 재료나 도구를 사용하여 색칠해 보거나 칼이나 송곳, 못으로 긁어 보는 방법, 자료를 모아 이미지를 합성해 보는 등 여러 방법으로 실험해 보는 중 자신이 생각한 표현 방법에서 한지공예의 작품에 맞는 표현 기법을 발견 하여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림에 소질이 없는 학생들도 이러한 기회를 통해 꼴라주와 한지공예를 접목시킨 작품을 제작 시에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주고 흥미를 유발시켜줄 수 있다.

둘째, 꼴라주의 자유로운 표현 방법에 인해 표현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된다. 꼴라주 기법은 그림에서 사실적인 표현을 나타내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 게 아이디어를 심어줄 수 있는 훌륭한 표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림을 꼭 연필이나 붓 등으로 그려서 완성시키는 것이 아닌 사진을 이용하여 붙이거나 그리고자 하였던 실제 물건을 붙이는 작업으로도 그림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두려움을 떨치고 원하는 작품을 표현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된다. 따라서 표현에 대한 자신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감이 향상되면 꼴라주 기법을 접목한 한지공예의 작품이 창의적인 표현이 가능해질 수 있으며 독특한 작품이 탄생하게 되어 학생이 갖는 새로운 표현의 자신감을 향상시켜준다.

셋째, 전통공예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꼴라주를 접목하여 한지공예를 활용한 큰 이유는 전통을 학생들에게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함이다. 현대의 문물에 적응되어있는 학생들에게 전통만을 중요시 하게 생각하여 학습을 하게 되면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며 흥미도 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대적 인식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전통을 인식을 시키기 위해 한지공예에 현대적 기법을 접목하며 새로운 학습을 하여 쉽고 흥미를 일깨워준다. 한지공예의 기법을 활용할 때 꼴라주의 다양한 기법을 그것에 접목을 시켜 학생들의 독특한 작품을 만들 수 있어 흥미가 일어나고 창의적인 표현을 일깨워 주며, 이러한 학습을 통해 전통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세 가지의 교육적인 효과를 보고 현대적 기법을 활용한 한지공예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쉽게 우리나라의 전통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다양한 재료관찰과 실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어떤 표현을 하면 이 기법과 잘 맞는지 판단하게 되고 표현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어 거침없는 작품을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러한 효과를 얻고 나서 한지공예와 꼴라주 기법을 접목시켜 작품을 제작할 때, 전통을 보다 쉽게 학습할 수 있게 되는 것에 의의를 가진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Ⅳ. 효과적인 교육지도 방안

제1절 효과적인 교육지도 방안을 통한 기대효과

앞서 말한 것과 같이 한지공예는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이며 전통공예의 한 종류로 아름다움과 실용성이 겸비되어진 일반적인 공예로서 선조들의 사랑과 애환이 담겨있다. 즉, 전통미술은 단순한 감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편리성을 더해주는 실용적 가치나 심미적 가치 및 선조들의 생활을 느낄 수 있는 정서적 가치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조들이 물려준 전통에 자부심을 갖고 이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발전 시켜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의 학생들은 전통에 대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현대 문물의 사용으로 전통을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에게 전통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수업을 통해 우리나라 전통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우리나라 전통의 종이인 한지를 이용한 한지공예 수업을 통해 전통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지만 현대 문물에 익숙한 학생들은 지루하고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현대적 기법인 꼴라주를 한지공예에 접목시킨 수업을 통해 보다 쉽고 흥미롭게 전통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며, 우리나라 전통에 자부심을 갖고 계승 및 발전시키는 태도를 가지게 된다.

이제 현대 문물을 접해가는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현대적 기법을 접목한 전통 한지공예 수업은 우리나라 전통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하며 학습할 수 있고, 다양한 재료의 관찰과 실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창의력이 향상되며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업을 통해 우리나라 전통을 효과적으로 계승 및 발전시킬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2절 효과적인 교수 · 학습 지도안

대상 : 중학교

대단원 : 전통과 현대미술 문화의 조화

소단원 : 종이 공예

1. 교수 · 학습 지도 방안 계획

가. 수업의 목표

전통이란 단순한 과거의 산출물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유기적으로 혼합하여 현재의 삶을 풍족하게 해주며 새로운 미래를 창출할 수 있는 정신적인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 민족의 정서와 성장, 양식, 풍토 등이 농후하게 깃든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다. 이것에서 비롯된 우리나라의 문화는 선조들이 손을 이용하여 끊임없이 물건을 만들었고 서로의 생각이나 기분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 살아왔으며, 현재에도 계속되어 오늘날과 같은 문화를 창조해왔다. 이러한 문화는 미술문화가 시작되는 발판이 되어 미술은 실생활 속에서 창조되어 다시 실생활에서 활용되는 것이다.

한지공예품을 만드는 것은 자연의 소중함, 생명의 소중함, 물건의 중요함, 물건을 만드는 일의 뿌듯함을 체험하는 것과 동시에 전통미술에 접근할 수 있는 폭넓은 조형적 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한지공예의 주재료인 한지의 부드러운 질감은 정서적으로 메마른 현대인들에게 손의 감각을 통해 전해지는 온기 있는 정서를 일깨우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한지를 통해 전통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여기에 현대적 기법을 접목시켜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한지공예를 현대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해 봄으로써, 전통미술을 색다르게 표현을 해볼 수 있고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된다. 또한 많은 현대적 기법을 활용해 봄으로써 표현의 자신감이 향상되어 전통을 현대에 접목시키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전통미술의 작품을 다양하게 활용해 보는데 학습의 의의가 있다.

이러한 학습 내용을 통하여 본 수업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의 의미를 이해하고, 전통을 중요하게 인식할 수 있다.

둘째, 한지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 특성에 알맞은 한지공예의 다양한 기법을 습득할 수 있다.

셋째, 한지공예의 다양한 기법을 통해 선조들이 한지공예의 활용법을 실생활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해왔는지 알 수 있다.

넷째, 현대 공예 기법의 다양한 종류를 파악하고, 그 중 꼴라주 기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다섯째, 꼴라주 기법의 종류를 알고 체험해 봄으로써 작품 표현의 자신감을 기를 수 있다.

여섯째, 한지공예와 파피에꼴레를 접목시켜 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제작할 수 있다.

일곱째, 전통미술의 특성을 활용하여 한지공예와 파피에꼴레를 접목시킨 작품을 제작하면서 전통을 좀 더 흥미롭게 배울 수 있다.

여덟째, 파피에꼴레를 접목시킨 한지공예를 이용하여 현대적 생활용품으로 제작해 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나. 수업 학습 계획

미술 교과의 영역인 미적체험 · 표현 · 감상영역을 서로 연계시켜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전통과 현대를 접목한 수업에 의의를 두었다. 시수는 총 4차시로 구성하였다.

<표-1> 전통 한지공예 수업 학습 계획

영역	차시	학습 내용	학습활동	교수 학습자료
미적 체험	1	이론	· 전통미술의 개념 · 한지의 역사 및 특성 · 한지공예의 기법 · 꼴라주의 개념 및 종류 · 지호공예와 파피에꼴레의 접목 방법 · 작품 제작 시 유의점	참고작품 감상 (유인물, PPT 등)
표현	2	실기	· 작은 통, 한지 준비하기 · 통에 한지를 덮어 물에 적셔 틀 만들기	참고작품 감상 (유인물, PPT 등) 실기 학습
	3		· 2차시에 만들어 둔 지호공예품, 신문이나 잡지, 색지 등 준비하기 · 효과적인 파피에꼴레의 기법을 위한 여러 방법을 활용해보기 · 지호공예품에 파피에꼴레를 접목하여 작품 만들기	
감상	4	감상 및 평가	· 완성된 작품 서로 감상하기 · 파피에꼴레를 접목한 한지공예의 작품을 제작하면서 느낀점 발표 및 토론	감상 학습 토론 학습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다. 지도방법 및 유의점

첫째, 한지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의 종이인 것을 인식하고 창조 · 계승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둘째, 한지공예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참고 작품을 제시한다.

셋째, 한지공예의 여러 가지 기법을 활용하여 작품에 표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넷째, 꼴라주 기법의 종류 중에 파피에꼴레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참고 작품을 제시한다.

다섯째, 지호공예와 파피에꼴레의 기법을 잘 접목하여 표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여섯째, 재료를 올바르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파피에꼴레의 기법을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일곱째, 순회 지도를 통해 제작하는 과정을 수시로 확인하며 주어진 시간에 완성할 수 있도록 하며 독특한 작품의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여덟째, 현대적 기법을 접목시키는 과정에서 전통미술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정체성을 인식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한지공예를 활용한 교수 · 학습 지도안

가. 1차시 지도안

영역	차시	학습 내용	학습활동	교수 학습자료
미적 체험	1	이론	· 전통미술의 개념 · 한지의 역사 및 특성 · 한지공예의 기법 · 꼴라주의 개념 및 종류 · 지호공예와 파피에꼴레의 접목 방법 · 작품 제작 시 유의점	참고작품 감상 (유인물, PPT 등)

(1) 자료 및 준비물

- 교사 : 한지공예 및 꼴라주에 관련된 PPT 자료, 한지공예의 다양한 작품집 등.
- 학생 : 교과서.

(2) 수업 지도 시 유의사항

첫째, 한지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 종이인 것을 인식하게 하여 한지의 가치를 알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한지공예의 기법을 알고 전통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셋째, 꼴라주의 종류를 알고 파피에꼴레의 기법을 통해 지호공예와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지도한다.

넷째, 모둠 인원수는 5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지도 방법

첫째, PPT자료를 통해 한지의 역사와 한지공예의 기법을 살펴본다.

둘째, 한지공예의 기법의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시킨다.

셋째, 다양한 작품의 한지공예를 보여준 뒤 어떠한 기법으로 제작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지도한다.

넷째, PPT자료를 통해 파피에꼴레의 다양한 작품을 보여주며 기법에 대해 이해시킨다.

다섯째, 지호공예와 파피에꼴레를 접목시키는 방법을 살펴보며 일깨워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4) 지도 내용

<표2-1> 1/4차시 지도안

주제		파피에꼴레를 접목한 한지공예의 이해	차시	1/4
학습 목표		▶ 전통미술과 한지의 역사 및 특성을 알 수 있다. ▶ 한지공예의 기법 중 지호공예를 알 수 있다. ▶ 꼴라주의 기법 중 파피에꼴레를 알 수 있다. ▶ 지호공예와 파피에꼴레를 접목 방법을 알 수 있다.		
수업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4′)	▶전시학습 확인 ▶동기유발 ▶학습목표 제시	▶전시학습 확인 · 전시학습 및 과제 내용을 확인한다. ▶동기유발 · PPT를 통해 한지를 이용한 공예품과 파피에꼴레의 작품을 보여준다. ▶학습목표 제시 · 본 차시의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인터넷, PPT, 유인물 : 작품 감상	
전개 (36′)	▶개념설명 ▶보충설명	▶개념설명 · 전통미술과 한지의 역사 및 특성을 설명한다. · 한지공예의 기법을 설명한다. · 꼴라주 기법의 종류와 파피에꼴레의 개념을 설명한다. ▶보충설명 · 지호공예와 파피에꼴레의 접목 방법을 제시한다.	인터넷, PPT, 유인물 : 작품 감상	
정리 (5′)	▶형성평가 ▶차시예고	▶형성평가 · PPT를 이용하여 형성평가 문항을 제시한다. ▶차시예고 · 다음 차시 준비물 예고 (모둠별로 물통 준비, 작은 통, 붓 등)	PPT : 학습목표와 일치하는 형성평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5) 형성평가 문항

① 우리나라의 한지공예 중 절구에 곱게 찧고 점토와 같이 만든 다음에 이것을 일정한 크기의 틀 안에 부어서 형태를 만들거나, 집에서 쓰는 그릇 위에 이를 덧붙여 형태를 만든 뒤에 그 위에 물을 스며들게 하거나 색지를 붙여 완성시킨 공예품은 무엇인지 쓰시오.

: **지호공예**

② 꼴라주 기법의 종류 중 종이만을 이용하여 붙이는 기법은 무엇인지 쓰시오.

: **파피에꼴레**

(6) 평가 기준

<표2-2> 1차시 평가 기준

평가 관점	평가 기준		
	상	중	하
한지공예의 기법과 지호공예의 이해	한지공예의 기법을 이해하고 제시된 한지공예의 기법의 명칭을 알고 지호공예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한지공예의 기법을 알고 지호공예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한지공예의 기법을 알지만 지호공예의 이해가 부족하고 설명이 미흡하다.
꼴라주 기법 중 파피에꼴레의 이해	꼴라주 기법을 알고 파피에꼴레의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꼴라주 기법을 알고 파피에꼴레의 특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꼴라주 기법과 파피에꼴레의 특징의 이해가 부족하고 설명이 미흡하다.
자료조사 및 발표태도	수업의 준비가 잘 되었으며 태도가 적극적이다.	수업의 준비가 보통이며 태도가 수동적이다.	수업의 준비가 안 되었으며 태도가 소극적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나. 2차시 지도안

영역	차시	학습 내용	학습활동	교수 학습자료
표현	2	실기	· 작은 통, 한지 준비하기 · 통에 한지를 덮어 물에 적셔 틀 만들기	참고작품 감상 (유인물, PPT 등) 실기 학습

(1) 자료 및 준비물

- 교사 : 한지, PPT(지호공예 만드는 과정), 다양한 지호공예의 작품집 등.
- 학생 : 작은 통, 붓 등.

(2) 수업 지도 시 유의사항

첫째, 지호공예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통 위에 덮은 한지가 뜨지 않도록 지도한다.

둘째, 통에 덮은 한지에 물을 부을 경우 적당량의 물을 적시도록 순회지도하며 지도한다.

셋째, 모둠 인원수는 5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

(3) 지도 방법

첫째, 전 차시에 제시하였던 PPT(지호공예 만드는 과정)을 제시하여 지호공예 제작과정을 상기시킨다.

둘째, 지호공예를 만들기 위해 작은 통에 한지를 덮고 물을 적실 동안 다양한 지호공예의 자료를 보여준다.

셋째, 건조할 장소를 청결하게 한 뒤, 젖은 상태인 작품을 조심스럽게 건조하도록 지도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4) 지도 내용

<표-3> 2/4차시 지도안

주제		파피에꼴레를 접목한 지호공예 만들기(1)	차시	2/4
학습 목표		▶ 지호공예의 기법의 제작 과정을 알 수 있다. ▶ 지호공예를 만들 수 있다.		
수업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4′)	▶전시학습 확인 ▶동기유발 ▶학습목표 제시	▶전시학습 확인 · 전시 학습한 지호공예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며 본 차시 학습 실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동기유발 · 지호공예의 다양한 작품을 PPT를 통해 보여준다. ▶학습목표 제시 · 본 차시의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인터넷, PPT, 유인물	
전개 (36′)	▶순회지도 ▶모둠별 활동	▶순회지도 · 모둠별로 활동 하는 것을 보며 지도한다. ▶모둠별 활동 · 지호공예 만들기 ① 작은 통에 한지 덮기 ② 물을 부어 스며들게 하기 ③ 한지가 뜨지 않게 주의하기 ④ 건조	PPT, 유인물	
정리 (5′)	▶주위정리 ▶차시예고	▶주위정리 · 어질러진 주위를 정돈시킨다. ▶차시예고 · 다음 차시 준비물 예고 (모둠별로 신문, 잡지 등 종이 구하기, 한지, 풀 등)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다. 3차시 지도안

영역	차시	학습 내용	학습활동	교수 학습자료
표현	3	실기	· 2차시에 만들어 둔 지호공예품, 신문이나 잡지, 색지 등 준비하기 · 효과적인 파피에꼴레의 기법을 위한 여러 방법을 활용해보기 · 지호공예품에 파피에꼴레를 접목하여 작품 만들기	참고작품 감상 (유인물, PPT 등) 실기 학습

(1) 자료 및 준비물

- 교사 : PPT(파피에꼴레 작품), 다양한 파피에꼴레의 작품집 등.
- 학생 : 전 차시에 제작한 지호공예, 신문, 잡지, 색지, 가위, 풀 등.

(2) 수업 지도 시 유의사항

첫째, 파피에꼴레의 기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해 보고 표현의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도한다.

둘째, 파피에꼴레의 여러 가지 기법을 표현해보며 어떤 방법이 지호공예와 조화가 잘 될지 알 수 있도록 설명한다.

셋째, 지호공예와 파피에꼴레의 접목을 맞게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한다.

넷째, 모둠 인원수는 5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지도 방법

첫째, 모둠별로 가져온 신문, 잡지, 색지 등 서로에게 필요한 종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둘째, 지호공예의 표면에 파피에꼴레의 기법을 학생들이 원하는 표현으로 붙일 수 있도록 지도한다.

셋째, 지호공예와 파피에꼴레의 접목을 통해 보다 쉬운 전통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4) 지도 내용

<표4-1> 3/4차시 지도안

주제		파피에꼴레를 접목한 지호공예 만들기(2)	차시	3/4
학습 목표		▶ 파피에꼴레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 지호공예와 파피에꼴레를 접목할 수 있다.		
수업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4′)	▶전시학습 확인 ▶동기유발 ▶학습목표 제시	▶전시학습 확인 · 전시 학습한 파피에꼴레의 특징을 보여주어 본 차시 학습 실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동기유발 · 파피에꼴레의 다양한 작품을 PPT를 통해 보여준다. ▶학습목표 제시 · 본 차시의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인터넷, PPT, 유인물	
전개 (36′)	▶순회지도 ▶모둠별 활동	▶순회지도 · 모둠별로 하는 것을 보며 지도한다. ▶모둠별 활동 · 모둠별로 준비한 신문, 잡지, 색지 등 제시한다. · 다양한 표현으로 파피에꼴레의 기법을 활용한다. · 전 차시에 만든 지호공예 작품에 파피에꼴레를 접목하여 독특한 작품이 만들어지도록 한다.		
정리 (5′)	▶학습정리 ▶차시예고	▶주위정리 · 어질러진 주위를 정돈시킨다. ▶차시예고 · 다음 차시 준비물 예고 (자신이 만든 작품)	주위 정돈 잘하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5) 평가 기준

<표4-2> 2~3차시 평가 기준

평가 관점	평가 기준		
	상	중	하
기능성 및 심미성	지호공예의 특성을 살려 용도와 기능에 맞게 아름다운 형태로 완성되었다.	지호공예의 특성은 살렸지만 용도와 기능, 작품의 심미성이 보통이다.	지호공예의 특성을 살리지 못했고 용도와 기능, 작품의 심미성도 부족하다.
표현력	지호공예와 파피에 꼴레의 기법을 잘 접목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하였다.	지호공예와 파피에 꼴레의 기법을 접목한 표현이 보통이다.	지호공예와 파피에 꼴레의 기법을 접목은 하였지만 표현이 미흡하다.
준비 및 태도	준비가 잘 되었으며 제작 태도가 적극적이고, 작품 제작 후 주변 정리를 잘 하였다.	준비가 잘 되었지만 제작 태도와 작품 제작 후 주변 정리가 보통이다.	준비가 부족하였고 제작 태도와 작품 제작 후 주변 정리가 미흡하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라. 4차시 지도안

영역	차시	학습 내용	학습활동	교수 학습자료
감상	4	감상 및 평가	· 완성된 작품 서로 감상하기 · 파피에꼴레를 접목한 한지공예의 작품을 제작하면서 느낀점 발표 및 토론	감상 학습 토론 학습

(1) 자료 및 준비물

- 교사 : 자신의 작품에 대한 설명서, 자기평가지.
- 학생 : 자신이 만든 작품.

(2) 수업 지도 시 유의사항

첫째, 지호공예와 파피에꼴레의 특성을 이해하여 발표할 때 이것을 적절히 활용되도록 한다.

둘째, 작품 감상 시 학생들에게 감상 관점을 정해준다.

셋째, 모둠 인원수는 5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

(3) 지도 방법

첫째, 완성된 작품을 모아서 교실에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지호공예와 파피에꼴레의 특성을 살린 서로의 작품을 비교하며 감상한다.

셋째, 다양한 파피에꼴레의 기법으로 활용한 지호공예 작품 제작 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발표하며 서로의 의견을 의논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넷째, 서로의 작품을 비교하며 창의적인 표현이나 개선점을 찾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4) 지도 내용

<표5-1> 4/4차시 지도안

주제		내가 만든 파피에꼴레를 접목한 지호공예 감상하기	차시	4/4
학습 목표		▶ 자신이 만든 지호공예의 제작 의도와 느낀점을 발표할 수 있다. ▶ 서로의 작품 표현 특징과 제작 의도가 무엇인지 비교, 분석 할 수 있다. ▶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며 우리나라의 전통을 창조 및 계승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수업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4′)	▶전시학습 확인 ▶작품 전시활동 ▶학습목표 제시	▶전시학습 확인 · 실기수업으로 진행 된 전시 수업에 대해 간단한 소감을 서로 나눈다. ▶작품 전시활동 · 학생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완성된 작품을 전시 한다. ▶학습목표 제시 · 본 차시의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전개 (33′)	▶작품발표 ▶비교감상	▶작품발표 · 자신의 작품에 대하여 발표한다. ▶비교감상 · 서로가 만든 작품에 대한 의견을 말하며 의논한다.		
정리 (8′)	▶단원정리 ▶차시예고	▶단원정리 · 자기 평가서를 작성한다. ▶차시예고 · 다음 차시 준비물 예고	주위 정리하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5) 평가 기준

<표5-2> 4차시 평가 기준

평가 관점	평가 기준		
	상	중	하
작품 설명서	자신이 만든 작품의 표현 방법과 느낀점 등을 명확하며 체계적으로 서술했다.	자신이 만든 작품의 표현 방법과 느낀점 등을 서술했다.	자신이 만든 작품의 표현 방법과 느낀점 등의 서술이 미흡하다.
작품 감상	지호공예와 파피에 꼴레의 기법을 접목한 작품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세하게 설명한다.	지호공예와 파피에 꼴레의 기법을 접목한 작품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설명한다.	지호공예와 파피에 꼴레의 기법을 접목한 작품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의 설명이 미흡하다.
태도	발표하는 태도와 다른 학생이 발표하는 것을 듣는 태도가 좋다.	발표하는 태도와 다른 학생이 발표하는 것을 듣는 태도가 보통이다.	발표하는 태도와 다른 학생이 발표하는 것을 듣는 태도가 소홀하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V. 결 론

전 세계에는 242개의 나라가 있으며, 각각의 나라마다 고유의 전통 문화와 예술이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5천 년이라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훌륭한 전통 문화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의 발달 및 인터넷의 영향으로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문화의 획일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각 나라 고유의 전통 문화와 공예품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통은 단순한 과거를 바탕으로 하여 현재와 유기적으로 섞여 현재의 삶을 풍족하게 해주고 새로운 미래를 창출할 수 있는 정신적인 원동력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 민족의 정서와 성장, 양식, 풍토 등이 농후하게 깃든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러한 전통 문화를 고리타분한 옛날의 것이나 진부한 것으로 여기는 인식이 존재하다.

오늘날의 미술 교육을 살펴보면 전통미술을 강조하며 중요시 하고 있으며, 교육지도의 폭을 넓히고 이해하며 전통을 계승 · 발전시킬 수 있는 창의적이고 전인적인 인간 육성을 목적으로 하여 창조적인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는 반면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학습되는 전통미술에 대한 수업 자료와 교육지도방법 등이 많이 부족하다.

우리의 것을 되돌아보며 그것을 지켜 나가려는 태도는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며, 이것은 단지 전통을 지켜야하는 문제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야하는 일이다. 특히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의 전통에 대한 관심과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은 그 어떠한 교육보다 우선적인 것이 되어야 하며, 효과적으로 전통을 습득하기 위해 한지공예와 현대적 기법을 콜라보레이션 하여 학생들이 흥미를 갖게 되고 창의적인 표현 활동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통미술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바로잡고 흥미를 유발하는 것에 중점을 두며 이를 위해 전통미술과 우리나라의 전통 종이로 만든 한지공예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한지공예의 표현기법과 더욱 효과적인 표현을 위한 현대적 기법을 접목한 한지공예의 새로운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한지에 대한 개념과 한지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러한 한지의 다양한 표현의 가능성을 학생들에게 인식시켜주고 현대적 기법을 접목시킨 한지공예의 수업을 통하여 전통미술을 경험해보도록 하여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생활 용품을 만들어보는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활동으로 심미적인 가치와 실용적인 가치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를 갖게 되고, 현대적 기법을 접목한 한지공예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표현과 창의성, 전통미술에 흥미를 일깨우고자 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한지의 활용으로 실생활에서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한지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현대적 기법을 접목하여 자유로운 표현을 통한 한지공예를 창의성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작품을 제작할 수 있었다.

둘째, 손쉽게 다루는 한지의 특성을 살려서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활동의 기회가 주어져 미적 안목을 높여줄 수 있었다.

셋째, 우리나라의 전통 종이인 한지를 이용하여 한지공예의 표현 활동을 함으로써 전통미술의 이해와 관심, 흥미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전통공예를 좀 더 쉽고 흥미롭게 학습하기 위해 현대적 기법을 접목한 한지공예를 활용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색다른 표현 활동이 될 수 있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다섯째, 한지를 활용하여 생활용품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옛날의 것에 대한 아름다움을 찾게 되고 심미적 목적과 실용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으며, 현대적 기법을 접목하여 새로운 한지 공예의 활용을 통하여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계승 · 창조 ·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한지를 활용한 학습은 다양한 미적 체험과 전통미술에 대한 자긍심을 길러주며, 선조들의 자연적이고 소박한 정신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기회가 된다. 또한 전통미술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함께 우리나라 민족의 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전통이라고 하여서 오래된 것, 멈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며 전통은 살아가면서 필요한 새로운 창조를 위한 바탕으로서 계속되어져 가야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통하여 학생들이 전통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전통미술에 대한 새로운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통미술의 표현 방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참 고 문 헌

단행본

국립민속박물관.『한국의 종이문화』. 학고재. 2001.

서석례외 2인.『미술과 교사용 지도서』. 중앙교육진흥연구소(주). 2000.

서재행.『공예 염색 기법』. 미진사. 1994.

심화숙.『전통한지공예』. 전통한지공예가협회. 2005.

열화당편집부.『현대미술용어사전』. 열화당. 1978.

이규선 외 6명.『미술교육학 제3판』. 교육과학사. 2008.

이선원 외.『종이에서 조형까지』.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2000.

이성도 외 3명.『전통미술 문화 교육』. 미진사. 2005.

이승철.『종이 만들기』. 학고재. 2001.

이승철.『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한지』. 현암사. 2002.

이일.『현대미술의 시각』. 미진사. 1985.

임영방.『미술이 걸어온 길』. 학고재. 2003.

임영주, 상기호. 『오색한지공예』. 한길 출판사. 1997.

전성수 외 3명.『함께 배우는 우리 미술』. 예경. 2003.

최영숙, 이주은.『한눈에 보는 한지』. 한국 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 2013.

최완기.『한국의 전통 교육』.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5.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한국의 장인』.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1997.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학위논문

고민정. “중학교 디자인 교육을 위한 한지공예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권태교. “중학교 전통미술 감상수업 활용을 통한 창의성 신장 연구-한지공예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김주연. “중학교 미술교과에서 한지공예 활용방안(줌치기법 중심으로)”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김현주. “프로타주 기법을 통한 수묵표현 연구-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반미선. “한지를 활용한 고등학교 미술 수업연구-전통미술 교육 단원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박은경. “포토몽타주기법을 활용한 자화상 수업방안 연구-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화상 제작-”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박지연. “콜라주 기법을 활용한 고등학교 전통미술 지도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박혜련. “파피에꼴레를 활용한 자화상 표현 지도방안 연구”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서정아. “프로타주 기법을 활용한 탠저블 인터페이스 작품 표현 연구-인터랙티브 그림책, ‘[Draw me] 도마뱀을 찾아서’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송점순. “현대미술에서의 꼴라주 기법 연구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미술 · 디자인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이애덕. “닥종이인형의 조형에 대한 연구-작품 제작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정미옥. “포토몽타주(Photomontage)를 활용한 인물화 지도 방안 연구-중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정혜경. “전통 공예를 응용한 한지 수업 연구: 고등학교 미술 수업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홍연희. “중등미술교육에서 한지공예의 특성을 이용한 조형작품 지도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황혜경. “전통미술 인식을 위한 중학교 한지공예 수업 방안 연구”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사이트

<그림1-1,2,3>, http://m.blog.daum.net/58mtclub/12153595

<그림1-4>, http://gjdream.com/v2/news/view.html?uid=436706

<그림2-1,2,3>,
http://www.yeasarang.com/gbbs/bbs/board.php?bo_table=mate06

<그림2-4>,
http://www.goodnewspeople.com/read.php3?aid=12593223233716011

<그림3-1,2>, http://m.blog.daum.net/flowerarts/6544641

<그림3-3>,
http://www.yiinews.com/ArticleView.asp?intNum=17283&ASection=001002

<그림5-1>,
http://www.studydroid.com/printerFriendlyViewPack.php?packId=347703

<그림5-2>, http://www.jinny317.wo.to/jarou/dojagi.htm

<그림5-3,4>, http://m.blog.naver.com/asdysh2263/220133511408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6-1,2>,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30756&cid=42678&categoryId=42678
<그림6-3>, http://blog.daum.net/gallery-sky/4688689
<그림6-4>, http://www.vop.co.kr/A00000797530.html
<그림-8>, http://m.blog.daum.net/glim54
<그림9-1,2>, http://m.blog.daum.net/hyeanj/7969065
<그림9-3>, http://blog.daum.net/gold9055/15013464,
http://blog.naver.com/PostThumbnailView.nhn?blogId=poshlady&logNo=90083790976&categoryNo=324&parentCategoryNo=
<그림10-1,2>, http://news.joins.com/article/19030318,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kujjang&logNo=20039010101&parentCategoryNo=&categoryNo=68&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View
<그림10-3>,
http://down.edunet4u.net/KEDLAA/13/B3/0/KERIS03_B301325RBP.jpg,
http://per4art.com/home/bbs/board.php?bo_table=b1&wr_id=47&device=mobile
<그림11-1>, http://m.blog.naver.com/kakiyata/80203968175
<그림11-2>,
http://www.imagian.net/exhibition/detail.asp?serial=112&cntPage=10&word=
<그림11-3>,
http://www.beaugle.co.kr/mobile/webzine_view.php?seq=164&type=W01,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llabbung&logNo=100009261187

Collection @ chosun